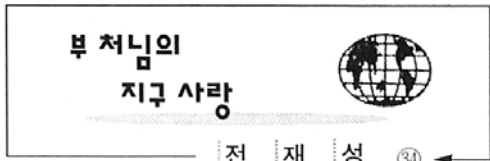


한국·일본 자동차 소음 세계적

부처님 당시 수행승들은 이란이처에 주로 명상을 즐겼는데, 그곳은 마을이나 번잡한 곳에서 떨어진 한적처(閑靜處)였다. 거기에는 나무나 숲이 있어 소음이 발생해도 흡수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갖가지 교통수단과 산업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하루 종일 각종 소음이 사달리고 있다. 도심은 물론이고 산골짜기까지도 경운기 소리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하는 판국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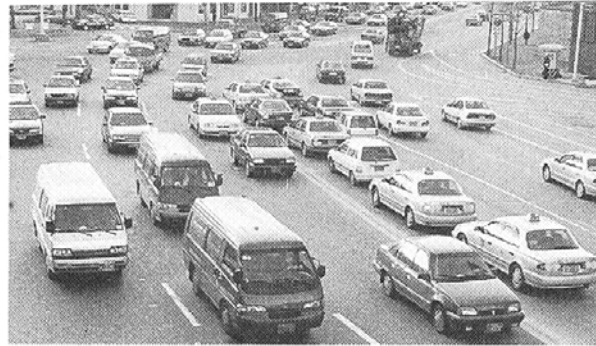
사소하게는 사무실의 타자기, 복사기, 팩시밀리, 컴퓨터, 텔레타이프 등에서 나는 일상 업무시의 소음을 비롯해,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산업시



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을 음폐효과라고 한다. 당연히 음폐효과도 소음의 강도가 클수록 크다.

도심 심야 주택지의 소음수준은 40dB 정도로 주간에는 40~50dB 정도까지 상승하는데, 야간에 이 정도라면 수면깊이의 저하를 초래하고 보다 늦

초월관이 수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반화가의 교통소음은 70~80dB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 누구나 짜증스러워하며, 혈압상승이나 맥박수의 증가 이외에 청력손실의 초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지하철 등의 전동차에서 나는 소리는 80~90dB로 생리적으로 소변량이 증



현대인들은 자동차소음 등 하루종일 각종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 건강을 위협당하는 새로운 환경공해 속에 노출돼 있다.

소음공해

설의 소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음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환경공해로 등장하고 있다.

소음은 그 강도가 커질수록 불쾌감이 높아지고, 소음의 고저가 높을수록, 강도나 고저의 차이가 클수록 더욱 강한 불쾌감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불쾌감은 심리적인 활동과 작업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끄러운 환경속에서는 정신적인 반응속도가 느려지고, 작업능률에 지장을 초래하며, 타자수의 타자속도를 저하시킨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소음은 상대방

교통소음, 혈압 상승·성호르몬 감소 유발 소음허가업소 17% 주거지역에... 건강위협

가 되고, 자동차의 경적소리는 90~100dB로 이러한 소음속에서는 생리적으로 혈당이 증가하고 성호르몬의 감소가 추가된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소리는 100dB 이상으로, 이러한 소음에 노출되면 일시적 청력손실을 일으키는 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되지 않는 오랫동안 계속 노출될 경우 영구적인

나란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소음공해 수준은 자동차소음의 경우 일본과 더불어 세계적 인 소음국가에 속한다. 1985년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소음 65dB 이상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비율이 13%에 육박한다. 이것은 독일이나 미국의 7~8%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다. 서울 도로 변 주거지역의 자동차 평균소음은

75dB에 이르며, 이중항로 소음은 막더라도 실내소음은 55dB 이상이다. 그밖에 소음배출업소로 허가받은 업소가 1993년말 현재 2만8천3백65개소가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100~105dB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들 업소 가운데 17% 정도가 주거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그밖에 소음공해로 심각한 것이 항공소음이다. 전국 8개 민간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는 대단하다. 항공기 한 대의 소음은 자동차 10만대가 동시에 발생시키는 소음에 맞먹는다. 정부가 90년 공항주변의 11만여 가구에 대해 피해보상특별법을 마련했다가 폐지한 사실은 남달리 가지 않는다.

(한국불교대 교수)

'95 신 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새벽 5시. 서울 창신동 정 보리심 보살의 집안에 범종 소리가 울린다. 막내 아들 기수(창신국 5년)가 불교방송을 틀어놓았기 때문이다. 도량서 소리와 함께 식구들이 일어나 불단이 차려진 작은 방으로 모인다. 이렇게 정보리심 가족은 매일 아침 라디오방송에 맞추어 아침 예불을 맞춘다.

예불은 부처님에 대한 예경의 의미를 지닌 것이며 자신을 위한 수행의 의미도 함께 지닌다. 예불은 아침 저녁으로 일정한 때를 정해 온가 쪽이 모여서 향을 피우고 삼귀의 오분량을 받아심경 사홍서원의 순서로 하면 된다. 발원은 아침에는 청정하게 오방승에 맞추어 아침 예불 계율을 지키고 중생을 위한

예 불은 꼭 불단이 마련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안에서 조용 하고

자 비의 하루 가 되 기 를 서원한다. 저녁에는 하루의 업을 참회 하며 무 사히

금주의 주제
기정에불

발원·자기반조·감사를 생활화

불상·佛·일원상등 갖추면 더욱 경건

가장 정결한 곳을 찾아 향을 피우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면 된다. 부처님 경구나 불화를 모셔놓고 예불을 모실 수 있다.

하루를 보내게 해주시 부처님의 자비에 감사하고 내일을 위해 발원한다. 시간이 허락하면 금강경 법성계 천수경을 독송하거나 정근을 하면 더욱 좋다. 목탁이 없으면 열주를 두손으로 받들어 합장하고 가부좌를 하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여야 한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불단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옛 신라인들은 집안에 불단을 차려놓고 현재도 등남아 많은 불교도들은 집마다 불단이 차려졌다. 만일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평소 다니는 사찰을 향해 예불을 모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불자라면 마땅히 매일 예불을 모셔야 한다. 오소리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조서예불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교계 유일의 어린이 포교지 월간(동쪽나라)(발행인 김형균)에 어른들의 각별한 사랑이 필요하다. 월 6만부 이상씩 발행되는 타종교의 어린이 잡지에 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품질을 계속해 오고 있는(동쪽나라)가 전국 국민학교 학급문교에 어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월간(동쪽나라)는 전국 어린이들을 만나기에 너무 힘겨웠다. 그간 교계 안에서는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전국무대에 나가기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다. (동쪽나라)는 불자들의 모

'국민학교 교실마다 부처님 말씀'

월간 '동쪽나라' 전국보급운동에 동참 기대

꽃피어 한다는 생각을 현실로 옮기기로 한 것이다. 어릴때 읽은 한 권의 책이 주는 감동은 평생을 두고 지워지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이 담긴(동쪽나라)를 교실에서 만난 어린이들의 가슴에도 평생 부처님 말씀이 심

교나 놓여온 산간벽지의 전국 국민학교 교실마다(동쪽나라)가 꽃피도록 힘을 보태고 싶은 불자는 은행지로 3034426번이나 우체국 010231-0028977-12(김형균)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02)263-1387

신행수첩

대자유와 보살의 길따라 무량회 원호사상 특강

원호스님은 대해(大海)와 허공(虚空)이라고 하는 삼의 현

장에서 자유자재, 무애해될 수 있는 방편으로서 두개의 노(자비행과 지혜)를 펼쳐 짓고, 하늘에서는 두개의 날개(止와觀)를 즐기게 약동시켜야 한다는 보살의 길을 제시하였다.

추위 녹이는 '사랑이 담긴 김장'

김을·삼전·마산중리복지관 후원자 모집

속이 짙은 싱싱한 배추에 빼알간 고추양념을 버무리는 주부들의 손끝에서도 성큼 다가온 겨울을 느낀다. 그 손끝으로,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의 맛을 내는 겨울김장 담그기에 동참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기다리는 곳이 있다.

김을중리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은 오는 30일까지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들과 소년소녀가장세대대를 위한 겨울김장을 준비한다. (02)985-0161~4 심전중리사회복지관(관장 보각스님)도 지역주민과의 1대 1결연을 통한 나눔 김치 한포기를 실시한다. 가정에서 담은 김장김치 1~5포기를 결연 후원자에게 직접 나눠주거나 함께 방문하면 된다. (02)421-6077 마산중리사회복지관(관장 진흥스님)도 제 2회 이웃 김장담그주기 캠페인을 벌이며 후원자를 모집한다. (0551)31-8017-9 배추 한 포기, 무우 한 대만일지라도 우리 이웃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데는 충분히 값진 사랑과 후원이 될 것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자모임인 무량회(회장 이완배)는 다음달 1일(금) 오후 5시30분 올림픽회관 1층 법회장에서 원호스님의 '이억중생의 길'을 요점하는 원호사상 특강을 갖는다.

이번 강좌는 평생을 원호 연구에 몰두해 온 한국불교학계의 태두 이기영박사(한국불교연구원장)의 강의로 진행된다. (02)410-1685, 1163

"활기찬 노년 보내세요" 범동북지역 노인건강강좌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건강 아닐까.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할 때 우리의 생활도 더욱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다.

범동북중리사회복지관(관장 종실스님)에서는 오는 28일과 29일 지역노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노인건강강좌'를 실시한다.

노인치매의 예방과 이해, 중풍의 예방과 치료, 단학수련, 노인건강체조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노래자랑도 펼칠 예정이다. (042)633-1141~3

선산 죽장사서 철야정진 진여회, 수도암도 들러

유명고찰들을 찾아 정기적으로 사찰순례를 떠나는 진여회(회장 박진성)는 오는 29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선산 죽장사를 거쳐 직지사 침암사 수도암을 들러본다.

첫날에는 선산 죽장사에서 철야정진기도를 마치고 계곡의 맑은 물과 울창한 수림으로 절경이라고 불리워지는 불영산 침암사를 참배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사찰순례의 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청암사에서 3km 떨어진 수도암에 당면 순례의 길은 극치를 이루게 될 것이다. 입동을 지나 다소 움추리기 쉬운 계절에 한바탕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사찰순례에 동참해 보는 것도 육체적 건강과 마음의 양식을 쌓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2)722-0181



'96 불교청소년의 해' 포교원, 표어·마크 공모

밝고 맑게 자리나는 청소년 불자들은 우리 불교의 기둥이 될 보배다.

조계종 포교원은 '불교청소년의 해'를 앞두고 청소년의 건강함과 역동성을 대변할 청소년 단체의 명칭과 청소년의 해 표어 및 심볼 마크를 현상 공모한다.

조계종 포교원 주최로 전국 불교 청소년의 해 표어·마크 공모전을 실시한다.

中央僧伽大學 96學年度新(編)入生 募集要綱

■ 본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7조에 의한 종단에서 운영하는 「기본교육기관」으로서 교육부의 4년제 대학 학력 인정 대학이다.

■ 모집학과 및 정원

학 과	모 집 정 원
불 교 학 과	60명
사 회 복 지 학 과	60명
계	120명

※ 제2차모집을 할 수 있음.

■ 응시자격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서 고교졸업,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타 종단승려도 정원의 5%내 입학할 수 있음.

■ 전형방법

고교내신성적	불교교리고사	면 접 성 적	계
60%	20%	20%	100%
600점	200점	200점	1,000점

■ 원서교부 및 접수

- 장 소 : 본교 교학처
- 원서교부기간 : 95. 12. 11(월) 10:00~96. 1. 19(금) 17:00
- 원서접수기간 : 96. 1. 15(월) 10:00~96. 1. 19(금) 17:00
- 토·일요일은 제외
- 우편접수는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원서에 한함.

■ 입학원서 접수시 구비서류

- 가.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나. 내신성적표(입학원서 하단 소정양식에 기록)
- 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입학원서 뒷면 소정양식에 기록.

대입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원본 및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 나.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다. 석차원명부 사본 1부(이상은 출신고에서 발급)
- 라. 승적사본(총무원발행) 1부
- 마. 건강진단서 1부(대학입시용)
- 바. 보호자추천서 1부 : 타 종단 승려는 소속종단 총무원장의 추천서
- 사. 호적등본 1부
- 아. 주민등록초본 1부
- 자. 칼라사진(오조가사 수한 반명함판)5매
- 차.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
 - ① 입학원서대 : 2,000원(입학요강포함)
 - ② 전형료 : 50,000원

■ 전형일정

- 예 비 소 집 - 장소 : 본교 대강당 - 일시 : 96. 1. 24(수) 09:00(음 12월 5일)
- 불교교리고사 - 장소 : 본교내 고사장 - 일시 : 96. 1. 24(수) 10:00~11:10
- 면 접 고 사 - 장소 : 본교 면접장 - 일시 : 96. 1. 24(수) 13:00~
- 신 체 검 사 - 원서접수시 제출한 건강진단서로 대체함

■ 합격자발표

- 장 소 : 본교 계서관
- 일 시 : 96. 2. 2(금)경 10:00(음 12월 14일)

■ 신입생 장학 및 혜택

- 전제수석 1명 : 1년간 등록금전액+교과서대금 수여
- 전체차석 1명 : 한학기 등록금 전액수여
- 학과수석 각 학과 1명 : 한학기 수업료 전액수여
- 학과차석 각 학과 1명 : 한학기 등록금 반액수여
- 재학생 전교생의 30%정도는 각종 장학혜택을 받는다.

■ 본교 입학생 및 졸업생 특징

1. 본교는 종단에서 운영하는 「기본교육기관」이므로, 본교 졸업자는 비구 및 비구니계와 법계 5급(정덕)을 필수 받는다.
2. 본교 졸업후 각 대학원에 진학,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3.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은 보건복지부의 2급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4. 재학생은 병역연기 혜택을 받으며, 예비군은 본교예비군 소대에 편성, 연중 1일의 기본교육만 받는다.

■ 편입생 모집요강

- (1)모집내용 : 제2학년-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명
제3학년-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사편입 약간명
- (2)지원자격
제2학년 : 대한불교조계종 승남2년이상 승려로서 대학 1년이상 수료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모든 전공, 계열에서 지원가능)
(전문대는 졸업생, 방통대-산업대(개방대) 1학년이상 수료자)
※ 단, 전직학교에서 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자격이 없음.
제3학년(학사편입) : 대학 4학년 졸업예정자 및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계종의 승남 3년이상 승려
- (3)전형방법 : 전적학교성적, 불교교리고사, 면접, 건강진단서정
- (4)지원희망자는 본교 교학처에 문의바람.

학교법인 中央僧伽大學
승가학원

136-075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7
☎ (02)925-5507-9, 926-4377, FAX(02)928-4302